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깨우치는 이치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리품(道利品) ②

如牛順流水 여우려도수
導正從亦正 도정종역정
奉法心不邪 봉법심불사
如是樂善安 여시중보안

소가 서로 격려하며 물을 건널 때
바르게 이끌면 역시 바르게 좇듯이
법을 받들어 마음이 사뭇지 않게 하

라

勿妄燒神象 불망요신상
以招苦痛患 이초고통환
惡意爲自欺 악의위자살
終不至善方 종불지선방

함부로 망녕되어 신상을 건드리지
말라

그로써 피로움과 근심을 부르리니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게 되어
마침내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戒德可恃怙 계덕가시호
福報常隨己 복보상수기
見法爲人長 건법위인장

“말은 좋은데 계율 지키지 않으면
몸 고요해도 법 배우는게 아니다”

終遠三惡道 종원삼악도

계율의 덕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복의 보응이 항상 내 몸 따르다
법을 보아 사람의 어른되면
마침내 삼악도는 멀어진다

戒除諸苦畏 계신제고외
福德三界尊 복덕삼계존
鬼龍邪毒害 귀용사독해
不犯持戒人 불범지계인

계를 삼가서 고통과 두려움 없애면
복덕은 삼계에 존귀하다
귀신 용의 사된 해독도
계를 지키는 이 범하지 않는다

無羨不誠信 무의불성신
欺妄好鬪爭 기망호투쟁
當知遠離此 당지원리차
近惡與罪多 근우흉죄다

도리가 없고 성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마땅히 그를 멀리할 줄 알아
어리석은 이 가까이하면 죄가 많이
일어난다

仁賢言誠信 인현언성신
多聞戒行具 다문계행구
當知親附此 당지친부차
近智誠善多 근지성선다

착하고 어질어 말이 진실되고
많이 듣고 계행 갖췄으면
마땅히 그런 이 가까이 친해라
지혜로운 이 가까이 하면 진실로 선
이 많다

善言不守戒 선언불수계
志亂無善行 지란무선행
雖身處淨穢 수신처잡은
是爲非法法 시위비법법

말은 좋은데 계율 지키지 않고
뜻이 산란해 선행 없으면
비록 몸이 고요히 숨어 살아도
이는 법을 배우는게 아니다

美說正爲上 미설정위상
法說爲第二 법설위제이
愛說可彼三 애설가피삼
誠說不欺四 성설불기사

아름답고 바른 말이 으뜸이 되고

법다운 말이 그 둘째가 되며
사랑어린 말이 그 셋째가 되고
진실하여 속이지 않는 말이 넷째이다

無使獲利刀 무편획리도
自以起其身 자이극기신
愚學好妄說 우학호망설
行牽受幸戾 행견수행려

그들은 문득 날카로운 칼을 잡아도
그것으로 제 몸을 베는 일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망녕된 말 좋
아해
그 행에 끌리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
받게된다

貪嫉勝悲嘆 탐음진에치
是三非善本 사삼비선본
身以斯自害 신이사자해
報由癡愛生 보유치애생

탐욕 성비 어리석음
이 셋은 선의 본바탕이 아니다
그것을 스스로 제 몸을 해치는데
그 보응은 어리석은 애욕으로 말미
암아 생긴 것

龍眼

혜경스님 (무설정사 주지)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보고(寶庫)
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전을 접하면서 어
떤 의미가 숨어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합
니다. 글자대로 따라가며 몰두하다가
는 '아하.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감탄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정법이 담겨
있으니,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럴만도 하
지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것을 공부한다
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행간
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
다. 그래서 그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
이면 바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에 해박한 사람들을 어렵
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를 어렵다고 말합
니다. 글자의 의미를 맞닥 며칠 꼼꼼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울 수 밖
에 없어요. 하지만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전을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쉽고 경전
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도
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부
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의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
학과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찍이 된 세계문학잡지를 읽어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좋은 것으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집안의 경제력도 상당
히 여유있는 편이어서 어느것 하나 부족
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교사도
했었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내가 머리를 짜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
도 30살이 훌쩍 넘었는데 안정된 직장에
여유있는 집안환경. 그리고 불교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했
지요.

그러던 어느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
히 <법화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까
지만 해도 <법화경>이 불교경전인 줄만
알았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들은 몰랐을 때라서 호기심 반 지식욕 반
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단
순한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지
혜가 있었고, 깨달음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탄복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승뚜리째 바꾼 인연이 되었습니다.

<법화경>을 접했던 그 이후 얼마간의
고민끝에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야 겠다

는 마음으로 경상도 문경에 있는 조그만
암자엘 갔습니다. 물론 머리로 거거서
읽었습니다. 집에서는 굳이 출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이 길이 내
가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
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이상적인 판단
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서른 네살 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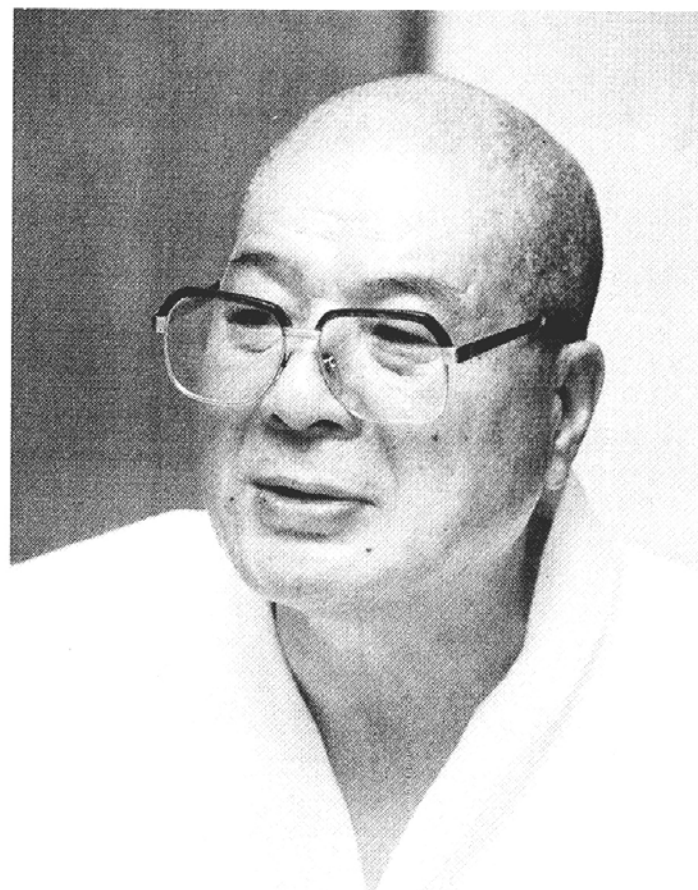
경전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출가
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전에 매달렸
습니다. 암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한 후
해인사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10여년간 이 절 저 절을 돌아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
며 살아있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
였습니다. 이 때에는 세상이 모두 내것만
같았습니다. 동거속서거사했던 내 결연

- 1933년 전남 여수 생
• 1956년 서울대 사학과 졸업
• 85~87 무량사 주지
• 現 한국불교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
• 동산불교대 경전연구원 교수,
법화종수원 원장
• 동산선원 지도법사, 무설정사
주지
• 저서 <법화경 입문> <법화삼부
경> <법화경 총설> <법구경 입
문> 등 다수

‘번뇌를 끊는다’는 잘못된 해석
수행정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늘 부처님 법이 있었고, 가득 채워야 할
불법의 세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경전에만 매달려 있을 때 한국
불교 법화종 법화사에서 경전을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느
라고 했지만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혹
시 잘못되거나 잘못을 하는 걱정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계
속되는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번역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화종 창종
주인 김해선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봉생활을 자처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경전 공부와 번역을 한지 10년이 넘었지



스님 혜경 (무설정사 주지)

만 배울수록 새로웠습니다. 엄하게 가르
치신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
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벽 4시에 예
불을 드리고 나서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는 경전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서너시간
의 수면이 유일한 휴식이었으니깐요. 그
러다보니 코피 터지는 것은 예사일 정도
로 몸이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법화경> '서품'을 번역
할 때였습니다. '부처님 이미에서 광공이
나와 사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땅이 여
섯가지로 진동했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
구나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장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
습니다. 이제까지 무생물로 보았던 세상
모든 것이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
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땅 속의 불성
과 불성이 마주쳐 움직이는 것이라는 깨
달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붓을 들고 일어
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실당실
춤을 추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구
라도 불꽃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표
현은 아마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경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 잘 몰랐던 것
들이 확연히 다가왔습니다. 누구한테 배
운 바도 없는 것들이 마치 주석을 달아
놓은 것 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야말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삼매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

만 배울수록 새로웠습니다. 엄하게 가르
치신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
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벽 4시에 예
불을 드리고 나서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는 경전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서너시간
의 수면이 유일한 휴식이었으니깐요. 그
러다보니 코피 터지는 것은 예사일 정도
로 몸이 말라 버렸습니다.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약알)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명진고
경우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든.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
성 주진경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종사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피부가 맑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일만에 이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이루어준 안면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드립니다.
체·업·사·례
저는 41세인 주부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신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종다는 발톱을 다듬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날 탱탱
크림 바르신 분이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를 피부가 깨끗해졌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하얗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이 다 10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없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칸즈
다쓰이박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
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질제했으나 癌은
肺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등스런 투병속
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
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
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성
품으로 범위를 좁혀 수천 종의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既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인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
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
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
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
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희생하면 體내의 면적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로버트
조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
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이 놀라운 변화
가 생겼다고 발표한다 있다. 다만 질자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
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
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
받아서 정상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구의 권위있는 병원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건강(健康)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젊음을 더 젊게, 돌아온 回春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간직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주변에는 內
外的 많은 요인들이 시시각각 엄습해 오므로 인하여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노쇠해지고 건강 또한 잃게 되는것이 보편적 정
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할애
하는데 있어 전문적 이론들은 기술할 수 없으므로 요약한데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人間의 體내에는 수많은 성장세
포가 있고 그 성장세포의 축적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일정기간
상향곡선을 그리며 성장했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하향곡선
으로 쇠퇴해가는데 이것을 이롭게 하여 처음 늙음을 향해가는 노쇠
현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리와 자연현상을 뒤라서 막겠는가? 그런데 既成
醫化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30여종이 넘는 성장체
세포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십이지장, 폴
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발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
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요즘은 의
외로 건강한 사람들중 주된 요점이 많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고 또한 이곳에는 佛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직접 가장까지 배달해 주시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필자의 본분이 修行자임을 감안 약값을 받는 상인이기
를 스스로 거부하는 바이며, 청정도량의 공덕불사에 조건없이
보시 등항 하실분은 한하여 직접 배달해 드릴 예정이다. 굳이
가격을 논하지 않고 無常布施 하실수 있는 분만 來訪 또는 전
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권에 한하여 배달가능함.
4일간격으로 계속 배달함.
※ 病환자중 현재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회
생불능 판정으로 수술까지도 거부당한 극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전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마지막에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많은 시일과 어려움이 따름으로 초기에 오시면 간편히 치료
됩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2-3개월이면 흔적도 없
이 완치됨.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면 연리바람.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담전화 : 직통 ☎ 0547) 437-4136, 437-4135